

# 7월, <암막 속 숨은 탈을 찾아라> 교육 소식

7월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암막 속 숨은 탈을 찾아라> 총 수업 8회 진행, 수혜인원 342명  
참여단체 길주초등학교 4학년 5개반 길주초등학교 2학년 1개반 경안중학교 2학년 8개반

7월, 무더운 한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암막 속 숨은 탈을 찾아라> 수업은 더운 여름, 학교에서 보다 편안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기존 박물관 내 수업 운영과 함께 일부 수업은 찾아가는 박물관 수업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또 많은 학생들이 이동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박물관에 찾아오지 않으셔도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학년별 수준에 맞추어 진행되는 <암막 속 숨은 탈을 찾아라>! 학생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앞으로도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박물관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7월 <암막 속, 숨은 탈을 찾아라> 참여 후기

탈을 그리는 것과 진짜 탈을 열어보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탈의 이름과 얼굴도 알게되었고 색칠하기도 재미있었습니다. 내뽀이나 한달뒤에 또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더 재미있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와! 탈 꼭감 놀이가 즐거웠다. 촉감으로 만져보고 종이에 오려서 붙이고 탁도 보고 탁도 색칠하고 재밌었다.

탈을 맞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탈 만들기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오주세요 기

탈을 색칠해서 써보는 것이 참 재미있었다. 그리고 탈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탈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에 잘 그리는 것만 맞추는 재미있고 신이났다. 그리고 탈도 만드니 행복하고 즐거웠다. 다음에 또 해줬다. 탈 만들 기랑 처음보는 탈을 보니 신기하고 재밌었다. 와! 탈을 촉감으로 하나하나 보는 것이 제일 재미 있었더라. 탈에 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도 알고 탁도 선물로 주고 기억에 남았다.

탈로 색칠하고 촉감을 오려서 하는게 재미있었다. 선생님이나 세리 선생님 명해주어서 더 신기했다.